



중·미 관세 전쟁 본격화 ‘등 터지는 곳’은 ○○○○



미, 엔비디아 H20 칩 수출 제한…국제 무대 ‘중 고립’ 노려
엔비디아 수 조 원 대 타격 불가피…칩 장비업체도 ‘부메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불을 놓는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희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에 이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 경제 무대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온 엔비디아는 수조 원의 타격을 입고 미국 칩 장비업체도 관세 부메랑을 맞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정부가 새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H20 칩은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 오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 AI 칩이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저가형 우수 AI 모델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H20은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칩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에 55억 달러(7조85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고, 구매 약정, 관련 충당금 등에 따른 비용이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40% 웃도는 규모다. 엔비디아의 수조원대의 비용 발생은 이 같은 막대한 주문량을 사실상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연간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지, KLA를 비롯한 업계 경영진은 지난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관세로 인한 부담 문제를 논의했는데 대형 업체의 경우 기업당 연간 3억5천만 달러(약 5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생

기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가 비용은 주로 반도체 장비를 중국 등 해외 시장에 판매하지 못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과 제조장비 부품의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관세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비용 상승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유예했으나 14일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추가 비용 추정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달라질 수 있다. 제조장비에는 여러 부품이 필요하고 관세율도 얼마가 될지 불분명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국제 경제 무대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백악관이 초기 과세 협상을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춰주는 대신 중국이 해당 국가를 거쳐 상품을 운송하는 것을 막고 중국 기업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회사를 세우거나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1.3% 상승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6.3% 하락했다.

/연합뉴스

미, 부산 영사관 등 각국 27곳 폐쇄 검토

연방정부 축소 위한 구조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산을 포함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27곳의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대사관 10개와 영사관 17개를 폐쇄하라는 권고가 담긴 국무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폐쇄 대상 대사관의 경우 몰타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유럽과 아프리카에 집중됐다.

폐쇄된 대사관의 업무는 인접 국가 대사관이 맡게 된다.

부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영사관을 포함해 프랑스에서 5곳, 독일에서 2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곳, 영국 1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등도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무부 내부 문서의 권고대로 부산의 미국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부산 영사관의 업무는

서울 대사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영사관의 폐쇄와 별도로 이라크와 소말리아 주재 미국 외교공관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권고도 문서에 포함됐다.

외교공관 폐쇄 권고는 국무부의 호세 커닝엄 운영담당 차관보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재국 및 관련 기관의 의견과 함께 영사 업무량, 미국이 직접 채용한 인력에 드는 비용, 보안 등급 등을 기준으로 폐쇄 공관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연방 정부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외교공관 폐쇄 권고를 승인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재외공관 폐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현재 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활동가가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5 음악 지속가능성 서밋’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

K팝 팬 기후행동단체, 환경파괴적 앨범 마케팅 중단 촉구

K-POP 팬들로 구성된 기후행동 단체가 세계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경 파괴적인 ‘음반 중독 구매 유도 마케팅’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팝 팬이자 젊은 기후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5 음악 지속가능성 서밋’ 본회의에 한국의 김나연(19) 캠페이너가 연사로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기후행동을 위해 뭉친 팬들’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자신이 케이팝 팬으로 시작해 14세에 기후활동가가 된 계기와 그동안 전 세계 케이팝 팬들과 함께 해온 기후대응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플라스틱 앨범의 죄악’ 캠페인을 설명하면서 앨범 중복 구매를 유도해 대량의 플라

스틱 쓰레기를 양산하는 마케팅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말미에는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No K-pop on a Dead Planet)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는 “케이팝 팬들은 무엇보다 사회 문제 해결에 앞다퉈 연대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진심”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음악 업계는 팬들을 단순히 소비자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음악 지속가능성 서밋’은 올해 두 번째 열린 글로벌 행사로, 음반 제작사와 공연기획사, 공연장,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 등 다양한 음악 업계 관계자들과 기후 과학자,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이 모여 음악산업의 구조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연합뉴스

유엔 제재에도…“러 쇼핑몰에 북한 일꾼 수백명”

러 독립언론 영상 공개…업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범 프로젝트”
지난해 北 학생 비자 8600건…러 “교통수단 제한에 송환 어려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수백명이 러시아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와일드베리스의 모스크바 창고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인 타티야나 김이 창립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채널 ‘오스토로즈노 노보

스티’ 등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와일드베리스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이 동영상에는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보라색 와일드베리스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와일드베리스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북한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러시아 매체 RTVI도 최근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와일드베리스에 수백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의 제재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0년 초 교통수단이 제한돼 북한 노동자 복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이 학생 비자를 이용해 노동자 수천 명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러시아 외무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에 북한인들에게 발급된 비자 9300건 가운데 8600건이 학생 비자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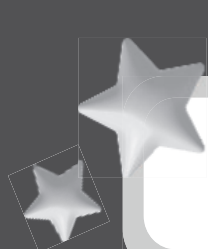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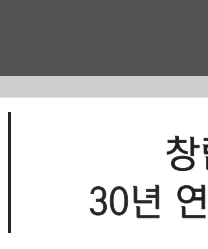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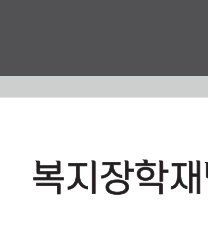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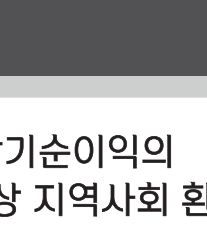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본점

 여신사업부

 양산지점

 운암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동림지점

 각화지점